

#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6. 5.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6
IV. 국제신인도 .....	8
V. 종합의견 .....	10

## I . 일반개황

면적	1,247천km <sup>2</sup>	G D P	1,030 억 달러 (2015년)
인구	25.1 백만 명(2015년)	1 인 당 GDP	4,100 달러 (2015년)
정치체제	공화제(대통령중심제)	통화단위	Kwanza (Kz)
대외정책	친서방	환율(달러당)	120.06 (2015년)

- 아프리카 남서부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앙골라는 한반도의 5.6배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, DR콩고, 콩고(북), 잠비아(동), 나미비아(남)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.
- 1975년 포르투갈로부터의 독립과 동시에 독립운동단체였던 앙골라인민해방운동(MPLA)과 앙골라완전독립민족연합(UNITA) 간에 권력 쟁탈전이 시작되었으며, 1976년 구소련 및 쿠바의 지원을 받은 MPLA가 단독 집권한 후 중앙정부(MPLA)-반군(UNITA) 간 내전이 2002년까지 27년 간 지속되었음.
-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나이지리아에 이은 제2위 산유국으로 석유산업이 GDP의 50%를 차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, 오랜 내전으로 인한 인프라 미비와 인적자원 부재가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 표 1 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<sup>e</sup>	2016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5.2	6.8	4.8	3.0	2.5
소비자물가상승률	10.3	8.8	7.3	10.3	19.1
재정수지 / GDP	4.6	-0.3	-6.6	-4.1	-7.1

자료: IMF

#### □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 지속

- 앙골라는 고유가, 광물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2001~10년 중 연평균 성장률 11.1%, 특히 2005~08년 연평균 성장률은 18.1%를 기록하였으나, 이후 유가 하락\* 및 세계 경제불황으로 인해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음.

\* 국제유가 추이(브렌트유 기준): 111.7('12) → 108.7('13) → 99.4('14) → 53.6('15) → 43.3('16.4)

- 이에 따라 2015년 경제성장률은 최근 15년 사이 최저치인 3.0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는 석유 부문뿐만 아니라 비석유 부문의 성장 둔화로 2.5%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#### □ 연료보조금 감축, 환율 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 상승세 반전
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전으로 인해 2000년대 초까지 100% 이상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지속하였으나, 이후 오일머니 유입에 따른 유동성 증가, 긴축 통화정책 등에 힘입어 하락세를 시현하여 2014년에는 7.3%까지 하락하였음.

- 그러나,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연료보조금 감축 정책과 환자화 가치 하락\*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2015년 물가상승률은 다시 두 자리수(10.3%)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는 19.1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
\* 환율 상승 추이(관자/달러): 96.5('13) → 98.3('14) → 120.1('15) → 173.0('16<sup>f</sup>)

□ **유가 하락,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확대**

- 재정수지는 2006~08년 중 고유가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(收入) 증가 등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를 유지하였으나, 이후 원유 생산량 감소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었음.
- 2015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저유가에 따른 세수 감소 외에도 공공부문 임금인상, 인프라 투자 증가 등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4.1%를 기록하였으며, 2016년에는 7.1%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.

**2. 경제 구조 및 정책**

**가. 구조적 취약성**

□ **석유의존적 경제구조로 국제유가 변동 등 대외적 충격에 취약**

- 석유 부문이 GDP의 50%, 재정수입의 75%, 총수출의 90%를 차지하는 등 석유의존적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량 증감 등 대외적 충격에 매우 취약함.
- 석유의존적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농업, 제조업 등 비석유 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를 추진 중이나, 여전히 석유 부문의 비중이 높은 상황임.

□ **오랜 내전으로 인한 열악한 인프라 및 인적자원이 경제성장에 제약으로 작용**

- 27년 간(1975~2002)의 내전으로 인해 사회기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, 종전 후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도로포장률이 20% 이하로 저조하며, 철도운행 및 전력공급 또한 원활하지 못함.
-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4/15년 글로벌경쟁력지수(GCI)에 따르면 앙골라의 종합 인프라 수준은 144개국 중 141위로 최하위 수준이며, 항만(121위), 전력공급(138위), 도로(139위) 등 부문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함.
- 또한, 장기 내전으로 인한 교육 인프라 미비로 2014년 기준 평균 교육 이수기간이 4.7년에 불과하는 등 숙련 노동인력이 부족한 실정임.

## 나. 성장 잠재력

### □ 원유,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

- 앙골라의 원유 매장량은 약 90억 배럴로 세계 16위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에 이어 2위 규모임. 일일생산량도 약 180만 배럴에 달하며, 해저에서 신규 유전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음.
- 2016년 5월 Lower Congo Basin 및 Kwanza Basin 지역에서 원유 5.7억 배럴, 천연가스 2.5조 m<sup>3</sup>, 컨덴세이트 1.4억 배럴 등이 새로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짐.
- 아울러 세계 4위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, 2014년 다이아몬드 생산량 가치는 13.2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 9.1%를 기록하였음. 이 외에도 금, 석탄, 구리,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함.

## 다. 정책성과

### □ 빈곤감축전략 등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흡

- 앙골라 정부는 빈곤감축전략(Stratgy to Combat Poverty, 2010-15)을 통해 빈곤층 감축 및 사회기반시설 개선 정책을 시행하였음. 또한, 국가개발계획(National Development Plan, 2013-17)을 통해 석유에 편중된 경제구조 다변화, 국내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음.
- 동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%는 여전히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며, 특히 2014년 이후 국제유가 급락 및 부정부패 만연으로 경제 개발이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.

### □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 활성화 기대

- 2015년 6월 이집트에서 아프리카 26개 회원국이 3각 자유무역지대(Tripartite Free Trade Area, TFTA) 체결에 합의하였음.
- TFTA는 동아프리카공동체(EAC),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(SADC), 동·남아프리카공동시장(COMESA) 등 기존의 3대 경제블록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한 것으로, 이 중 앙골라는 SADC의 회원국임.

- TFTA의 인구는 약 6억 2,000만 명이며, GDP 규모는 약 1조 달러로 아프리카 전체 GDP의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.

- TFTA는 각국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2017년경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, TFTA 발효 시 무역장벽 완화로 현재 12%에 불과한 역내 교역규모가 한층 더 확대될 뿐만 아니라, 고용 창출 및 투자 활성화가 기대됨.

### 3. 대외거래

< 표 2 >

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2	2013	2014	2015 <sup>e</sup>	2016 <sup>f</sup>
경 상 수 지	13,853	8,348	-3,722	-8,748	-9,444
경 상 수 지 / G D P	12.0	6.7	-2.9	-8.5	-11.6
상 품 수 지	47,376	41,903	30,583	14,009	10,016
수 출	71,093	68,247	59,170	35,545	30,045
수 입	23,717	26,344	28,587	21,536	20,029
외 환 보 유 액	33,035	32,414	27,795	18,123	13,224
총 외 채 잔 액	22,714	27,448	32,850	38,286	44,384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9.7	22.1	25.0	27.0	29.2
D S R	5.4	6.3	8.2	10.0	11.4

자료: IMF, EIU, OECD.

#### □ 유가 하락으로 상품수지 악화 및 경상수지 적자 전환

- 앙골라는 서비스·소득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원유 수출에 힘입은 상품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2013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해왔음. 그러나 2014년 이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출액 감소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음.
- 2015년에는 수입쿼터제 실시 등으로 상품수입이 감소하였으나, 원유 수출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·경상수지가 전년 대비 크게 악화되었으며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11.6%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환율 상승 방지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

- 2014년 이후 환율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감소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, 2015년에는 2012년 대비 약 45% 감소한 181억 달러로 추정됨.

□ 총외채잔액 및 D.S.R 증가세 지속

- 쌍둥이 적자 보전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외차입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 기준 27.0%를 기록하였음. 외채 원리금상환비율(D.S.R)도 수출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10.0%로 추정됨.

### Ⅲ. 정치 · 사회동향

#### 1. 정치안정

□ 집권당이 장기집권 중이나 반대세력의 비판에 따른 정치불안 요소 잠재

- 1979년부터 집권 중인 인민해방운동(MPLA)과 Santos 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서도 74%의 득표율로 승리함에 따라 2022년까지 4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것으로 예상됨.
- 그러나 최근 재정난에 따른 공무원 급여 지급 지연, 대통령의 부정축재 혐의, 인권 탄압 등으로 인해 반대세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권 안정에도 다소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  - 다만, 집권당이 언론을 강력히 통제하고 있으며 내전에 대한 국민들의 후유증이 남아있어, 유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.

□ 부정부패 만연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부족

- IMF 등 국제기구는 정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구조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. 그러나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부정부패 만연 등으로 인해 구조 개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.
  - IMF는 2012년 1월 보고서를 통해 2007~10년 중 앙골라 정부지출 중 약 320억 달러에 대한 지출 내역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.

- 국제투명성기구(TI)가 발표한 2015년 부패인식지수(CPI)에 따르면, 앙골라는 168개국 중 163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였음.

## 2.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

### □ 전후 복구사업, 난민문제 해결 등 사회안정 대책 미흡

- 독립투쟁(1961~75년), 내전(1975~2002년) 등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인해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었음. 이에 따라 전후 복구사업과 국가 건설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.
- 내전이 종료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귀국한 난민 110여만 명과 이재민 300여만 명에 대한 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.
- 또한, 내전 기간 중 반군이 앙골라 전역에 600만 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 하였으며, UN의 광범위한 지뢰제거 작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2만 개 이상의 지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됨.

### □ 반정부 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갈등 심화

- 2013년 11월 제1야당인 UNITA의 주도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발 하였으며, 이에 정부는 최루탄을 사용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120여 명이 구금되었음.
- 아울러, 2016년 3월에는 민주화 운동 지침서를 읽었다는 이유로 사회운동가 17명에 대해 국가 전복 혐의로 2~8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여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초래하였음.

## 3. 국제관계

### □ 중국의 제1위 아프리카 교역국으로서 긴밀한 관계 유지

- 내전 종료 후 중국은 앙골라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차관을 제공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.
- 중국의 대 앙골라 투자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165억 달러(중국수출입은행 110억 달러, 중국국제기금 29억 달러, 중국국가개발은행 10억 달러 등)에 달하며, 대부분은 Project Financing 형태의 건설계약 수주인 것으로 나타남.



- 또한, 2014년 기준 중국은 앙골라 제1위 교역국으로 수출의 50.3%, 수입의 23.7%를 차지하였음. 앙골라 또한 중국의 아프리카 지역 제1위 교역국으로, 아프리카 국가 중 중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.

**□ DR콩고와의 국경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**

- 2013년 DR콩고는 앙골라가 콩고 영해 내 유전(약 4000km<sup>2</sup>)에서 일일 5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해 막대한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며 앙골라 측에 해양경계 관련 회담 개최를 공식 요청하는 등 이의를 제기한 바 있음.
- 아울러, 양국이 1,500마일 이상의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DR콩고는 앙골라 군대가 자국 영토에 불법으로 주둔하고 있다고 비난함에 따라 양국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해 있음.

**IV. 국제신인도**

**1. 외채상환태도**

**□ 국제기구 앞 채무재조정 및 구제금융 요청 경험 보유**

- 1989년 파리클럽에 의해 4.5억 달러의 채무를 리스케줄링받았으며, 2004년에는 포르투갈과 18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에 합의하는 등 수 차례의 채무재조정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.
- 한편, 고유가에 기인한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을 바탕으로 2006년 12월 및 2007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파리클럽에 23억 달러의 채무 연체액을 상환하는 등 외채구조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임.
- 2016년 4월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재정적자 심화 및 환자화 가치 급락에 따른 외채상환부담 가중으로 2009년\*에 이어 IMF에 1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였음.

\* 2009년 14억 달러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상환 중

**□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**

- 2015년 9월 말 기준 OECD ECA 앞 총외채잔액 49.6억 달러 중 중장기 외채가 48.1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외채구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함.

## 2. 국제시장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당 행	C3 (2016.5)	C2 (2013.12)
OECD	5등급 (2015.6)	5등급 (2014.6)
S&P	B (2016.2)	B+ (2015.2)
Moody's	B1 (2016.4)	Ba2 (2014.8)
Fitch	B+ (2016.3)	B+ (2015.9)

## 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- 국교수립: 1962. 1. 6 (북한과는 1976. 4. 15 수교)
- 주요협정: 경제과학기술 협력협정('93),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('00), 외교관 및 관용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('09)
- 해외직접투자 현황: 2015년 말 기준 15건, 10,323천 달러(누계기준)
- 교역규모

<표 4> 한·앙골라 교역 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3	2014	2015	2016.3	주요 품목
수 출	1,242	1,800	1,859	118	선박해양구조물, 자동차, 석유제품
수 입	136	150	143	2	원유, LPG, 동(銅)제품
교역규모	1,378	1,950	2,001	120	-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## V. 종합 의견

- 앙골라 경제는 지난 10여 년 간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평균 10% 이상의 고성장을 달성하였음. 그러나 2012년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되며 성장률이 지속 둔화되었으며, 2016년에는 2.5%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.
- 유가 하락, 원유 생산량 감소 등 석유 산업 부진에 따른 재정수입 및 수출 감소로 인해 재정·경상수지가 각각 2013년, 201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쌍둥이 적자를 기록 중이며, 유가 회복 지연으로 2016년에는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- 1979년부터 장기집권 중인 MPLA와 Santos 대통령이 2012년 총선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2022년까지 집권을 연장하였으나, 정치권의 부정부패 및 시민사회 인권 탄압 등 문제가 정치·사회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.
- GDP 대비 총외채잔액과 D.S.R은 최근 수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5년 기준 각각 27.0%, 10.0%를 기록하였음. 특히 2016년 4월 재정난 및 통화가치 급락으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조사역 조재동(☎02-6255-5727)  
E-mail : jjd8948@koreaexim.go.kr